

제 100 호

연중 제 30 주일

(강림 후 21)

1974. 10. 27

쇼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 메세지

(1974년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

한국 천주교회를 지도하는 중책을 지고 있는 본 주교단은 교회 내외에서 일어난 작금의 상황을 중대시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7월 지학순 주교 구속사건 이래 사태를 주시해 오던 주교단은 지주교에 대한 인도에 관하여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교회의 사회참여에 선구적 역할을 한 지주교께 깊은 존경과 양심적인 지지를 보내 마지 않는다. 또한 조국과 교회의 진정한 발전을 염원하면서 계속해 온 성직자, 수도자, 교형자매들의 지주교님을 위한 열렬한 기도에도 대하여 주교단은 감사하며 하루속히 지주교님이 원주교구에 돌아오시기를 하느님께 계속 기도드리는 바이다.

오늘 우리 사회가 부조리와 불법과 부정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하여 우리는 방관자일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야기케 한 책임의 일단을 깊이 반성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이 시련을 하느님의 채찍으로 인정하고, “회개와 화해”으로 부르시는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여 하느님과 화해하여야만 세상도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고, 성신의 인도로 교회가 부단히 해신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는 복음정신을 실천하는 생활로써 진리를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하여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는 길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교도권이 공식으로 진리를 가르칠 때와,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평신도 단체가 말과 행동으로 전할 때와, 신자 개인이나 단체가 그리스도교적 양식에 따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할 때를 구별해야 한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교회의 참여는 주로 평신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현재 질서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완성하는 활동을 그 고유사명으로 하는 평신도들은 다른 시민들과 함께 각자의 능력대로 만사에 하느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목자들은 이 분야에 윤리적이고 영성적인 도움을 제공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자로서 복음적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을 하느님 나라에 인도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는 다양한 생활여건을 형성하여 다원 사회를 이루고 있고, 이런 사회안에서는 시민 각자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서로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같은 복음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도 현재 문제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라면, 이런 현재적 문제에 있어서 회일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타인의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현재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일지라도 그것이 정당할 것이면 인정해야 하고, 이런 의견을 정당하게 변호하는 시민이나 단체들을 존경해야 한다” (사목헌장 75).

오늘날 우리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하여 있다. 한편에서는 공산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의 유보가 강요되고 있고, 다른 한편 자유와 책임이 존중되는 기본 인권이 보장되어야 국가 안보의 터전이 마련된다는 두가지 사실의 긴장속에 처하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공동선을 위한 공권력으로 존중하면서 개인의 인권 옹호에 봉사해야 할 교회와 그 신자들의 행동은 특별히 신중하고 지혜로와야 할 것이다.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정치권력은 기계적이거나 폭군적이어서는 안되고 자유와 책임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 힘으로써 전 국민의 힘을 공동선으로 지향시키는 권력이라야 한다.” “또한 정치권력 행사는 언제나 윤리 질서의 한계내에서 합법적으로 공동선을 목적삼아 행사되어야 한다.” “공권의 유효행위로 국민이 억압을 당하는 경우에도, 국민은 객관적으로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이면 이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공권 남용에 항거하여 자연법과 복음이 제시하는 한계내에서 자신과 동포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 (사목헌장 74) 우리는 다시 한번 공의회가 이 가르침을 명백히 천명한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정신적 지원이 국가사회에 필요함을 선언하며 사회에 대한 우리의 봉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자율적이지만, 명목은 다를지라도 양자 다 같이 동일한 인간들의 개인적 사회적 사명에 봉사한다. 양자가 장소와 시간의 환경을 고려하여 서로 진정한 협력을 할 수록 이 봉사는 더욱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실현될 것이다” (사목헌장 76).

교회는 그 교유의 사명과 공동선을 위하여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목헌장 76). 그러므로 주교단이 우리나라의 정치질서, 경제질서, 사회질서, 특히 기본 인권 문제에 관하여 성명하는 것은 결코 정치의 고유한 분야에 간여하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에 입각한 가톨릭의 현재관을 천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현시국을 우려하는 주교단으로서는 비상조치법의 해체를 환영하면서 이 조치법으로 구금된 인사들은 조속히 석방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이러한 난국에 처하여 주교단은 백만 가톨릭 신자들에게 시국에 대한 견해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조국에 대한 충성과, 신앙의 형제들 사이의 사랑의 일치에 있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언어와 행동으로 내외에 증명할 것을 호소하면서 한국 교회에 하느님의 풍성한 강복을 빌어 마지 않는 바이다.

1974년 10월 18일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

【강 료】

만화만도 아닌 이야기

이 병 호 신부

나는 무엇?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무엇?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 분명한지, 내가 마치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무엇?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의 내가 참 나냐?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냐?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림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주리고, 좋은 말 따뜻한 말등무에 목말라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무엇? 이 들중 어느것이 나냐?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들이 동시에 나냐? 남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난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무엇? 이 척박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회통한다. 내가 누구든지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 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느님.

X X X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무던히도 예민한 양심의 소리를, 무던히도 성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더이트리히 본회퍼)의 절규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크나큰 위안이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감히 하느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주물럭(?) 거리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 복음의 날카로운 요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동안에도, 너무나 제자신 까마득히 멀리 서있음을 깨달았을때, 가슴은 한없이 답답한 것이었다. 복음 속에서 비정한 사제, 자기 도취에 갇힌 파리세이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속으로 얼굴이 붉어졌던가? 지금도 내 의식의 바닥에 깔려 제일 끈질기게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남에게 비쳐진 나와 자신의 눈에 비친 나 사이의 메꿀 수 없을것 같은 간격이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자신의 참된 처지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실로 사소한 허물에 더 많이 눈길을 주고있음에 스스로 고소를 먹음는다.

“한번 후련하게 진실해봤으면!” 그러나 마음 뿐 역시 내 안에는, 만화 같은 이야기가 만화만은 아니라는 소리가 들린다.

* 이 주일의 미사*

(1)개회식

□입당송 주를 찾는 마음은 즐거워하라. 야훼님 생각하라.그 권능을 생각하라. 언제나 그 얼굴을 그리워하라

(2)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진피서 35:15b-17, 20-22a 경향잡지 10월호 p. 73, 참조)
결손한 자의 기도는 구름을 뚫고 올라간다.

□종계송 ◎ 가엾은 이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 주셨도다.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자랑해 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할 하라◎

□제 2독서 (디오테오 후서 4:6-8, 16-18성서p.488)
정의의 월계관이 내게는 준비되어 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화해하시고 그 화해의 이치를 전하라 우리에게 말하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루가 18:9-14성서 p. 179)

파리세와 사람보다는 세리가 의화되어 내려갔다.

□신자들의 기도

1. 정의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 합시다 주여! 그들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에게 당신의 그 참된 왕적 사명의 진리를 알려주어 깨달음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추수에 농부들의 일손은 바쁘지만 합시다. 그러나 우리 신자된 본분에서 당신께 드릴 나의 수확은 얼마인지? 저울나무 가지와 같이 앙상한 나가 되어 당신앞에 나아가지 않게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

3. 성모여 당신은 모든 여성중의 여성입니다. 우리 현 모든 여성에게 당신의 그 순명, 사랑, 인자... 모두를 본받아 진·선·미를 결미한 성스러운 여성이 되어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소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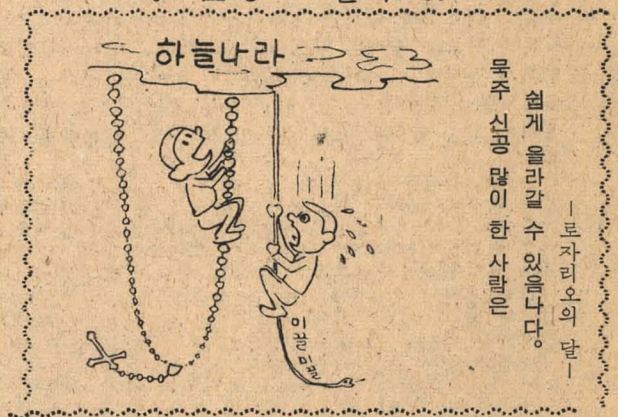
+주여. 이 모든 기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도록 더 우리에게 눈길을 돌려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주...◎아멘.

(3) 성찬의 전례

□불현 □성찬식

□영성체송 당신의 승리를 우리가 기꺼워하고, 우리 주 이름으로 깃발을 올리나이다.

* 쉼정이 산책 *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 씨 관 집

◎ 교우들에게 특별염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 6691 교회 85 번)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찾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5011 찾집 ㉠5013
김 원 준(야고버)

◎교형 여러분의 집◎

현 대 사 진 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 6289

□ 목 상 □



목주성월을 맞이하여

박 미카엘라 수녀

우선 토사리오 성월을 목주성월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주체성이 없고 무조건 남의 것을 받아 들이기 좋아하는 국민도 드물다고 봅니다.

사회 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무조건 품위를 높이는 듯 한 자만심에서 각계 각층에서 사용하는 것을 발견 할 때 비위가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종교 용어에 있어서도 충분한 우리 국어를 가지고도 외래어나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순수한 한국적인 신앙심을 약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 데서 목주성월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목주성월을 우리 모든 신자들은 얼마나 의식하고 있으며 그 의의를 느끼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모든것에 쇄신의 선봉을 가져 왔습니다. 그 어떤 면에는 눈부신 발전의 쇄신을 가져 온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일면에는 퇴보의 쇄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퇴보의 첫번째를 꼽는다면 기도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퇴보는 아니지만.....

한동안 기구는 생활화 해야하며 특별히 기도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신학자들의 학설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요. 이것은 교차원적인 신앙심을 높이기 보다는 둔하고 순진한 우리 교우, 수도자, 성직자들에게 가치를 잃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안일주의와 향락주의의 요인을 불러 넣는 요소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일미사를 쫓아다니고 아무 부담감을 갖지않는 마비된 생활을 하는 신도들이 많거늘 어찌 목주신공을 기대하며 운운할 바 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1917년 5월 13일 파티마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기구중에 목주신공을 가장 많이 부탁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세계정세와 한국정세를 비탄하시어 부탁하신 기도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날 기도생활이란 성직자, 수도자만의 것으로 인식되어 가는 경향이 많아짐을 누구의 죄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구는 나 자신을 돕고 내 가정, 내 사회 국가를 돕는 중추적 요인이라고 믿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에서도 건강을 소지 한 자는 능히 활동하여 자신을 해결하고 사회에 봉사 할 의무가 있듯이 전전한 신앙인이라면 아니 종교인이라면 우리는 타인의 기도에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이가 하나로 합하여 기도 드릴때 성모님의 찢린 상처를 씻어 버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신의 아들 오주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 실 때 어머니의 가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가시를 박았었다. 그러나 오주 예수 부활하심으로 성모님은 기쁨과 평화의 어머니으로 변모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자비와 사랑이 담긴 어머니께 우리는 다시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요. 아마 냉대와 무관심, 부조리, 물이해 등 만을 우리의 재산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모님께 가지관을 씌워 드리고 있는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 하나의 회생과 인내와 이해와 사랑을 목주알 마다 엮어간다면 성모님의 아픈 상처에 치료가 될 것이며 지상의 평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성체회 수녀원 원장 수녀>

요십이 (66) 김병오



□신간안내□

루가 복음 해설

신자들의 독상 길잡이 1,300원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습니다.

루가 12:8

이 주간의 성경

- 28(월) △성 시온과 유다 사도 축일
독서(에페소 2:19-22 성서 p. 440)
복음(루가 6:12-19 성서 p. 138)
- 29(화) 독서(에페소 5:21-33 성서 p. 445)
복음(루가 13:18-21 성서 p. 167)
- 30(수) 독서(에페소 6:1-9 성서 p. 445)
복음(루가 13:22-30 성서 p. 167)
- 31(목) 독서(에페소 6:10-20 성서 p. 446)
복음(루가 13:31-35 성서 p. 168)

- 1(금)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1독서(묵시록 7:2-4, 9-14 성서 p. 568)
2독서(요한 1서 3:1-3 성서 p. 545)
복음(마태오 5:1-12a 성서 p. 7)
- 2(토) 위령의 날 (전제사)
둘째미사
1독서(지서 3:1-9)
2독서(로마 5:5-11 성서 p. 346)
복음(마태오 11:25-30 성서 p. 25)



1. 사회 정의를 위한 세미나 (주최 :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

- ① 기간 : 10월 29일 (화) 오후 5시 - 31일 (목) 12시
- ② 장소 : 천주 가톨릭센터
- ③ 참가자격 : 전국의 모든 성직자 및 수도자
- ④ 참가비 : 각자 형편대로

2. J. O. C 전국 평의회 (10월 26~27일, 가톨릭센터)

한국 가톨릭 노동 청년회가 가지는 전국 평의회가 있음.

3. 아동 성가 경연대회 : 오늘 오후 1시 (중앙성당에서)

4. 가톨릭센터 부인회 준비 모임 75년도 부녀회 부장 차장 및 회원 참석바람

일시 : 10월 28일 오후 3시

5. 전주교구 사제 전체회의 : 교구 성년대회 준비 전

10월 29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회의실

(중앙)

전화 ②2651
③3874주임 신부 이 대 권
보좌 신부 서 석 구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위령의 날 (11월 2일 <토>)
연령들을 위해 미사 봉헌합니다.
3. 합동연도 다음주일 오후 2시 교회보지에서
4. 성모미사 다음주일 (7시반) 저녁 성모상 앞 (초지참)
5. 교무금 독려 내일부터 사도회 임원께서
각 가정을 방문하오니 준비요망
6. 성심 부녀 월례회 (11월 1일) 첫 금요일에 있음.
□ 지난주일금 44,191원 (금년도 예산은 주당 8만원
입니다. 분발합니다).
전교주일 현금 6,00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합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안또니오 재속 형제애 (다음주일)
3. 미사시간 변경 (화요일부터)
주일 : 아침 6시 30분 공식미사 : 오전 10시
저녁 7시 평일 : 저녁 7시 금요일 : 10시 토요일 : 오후 5시
4. 재경부소식 : 새 예산에 적극 협력 해 주시기 바람,
각 구역 반장님께서 자진 신입서 배부함. 본당 교적주
와 주소, 번지, 반을 확실히 기재바람.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합니다
임실군 덕수면 모래실 정용섭, 정용애 각 1,000원
남노 : 김수철 1,000원 우아 : 임갑래 1,000원
중노1가 : 이원희 500원 이름없이 : 학생 500원
지난주 신축 기금 4,500원 누계 1,671,912원
지난주 신축성미 1말 2되 누계 224말 2되
6. 고 글로리아 신부님 건강 하시기를 개구드립니다
□ 지난주일 봉헌금 17,865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종 환

1. 반상회 (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람)
10월 29일 (화) 덕진동 3반 부녀부 차장님택 저녁 8시
30일 (수) 덕진동 4,7반 이영남씨택 "
31일 (목) 금암동 3반 "
1일 (금) 금암동 2반 김용환씨택 "
2. 부녀부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축결혼 (10월 30일 12시)
강영옥 (로무알도) 군과 김옥백 양
4. 젊은이를 위한 광장 (매주 수요일 6-7시)
대상 : 본당내 모든 젊은이 (예비자포함)
내용 : "자아 발굴"
5. 전당리 공소미사 (오늘 오후 2시)
□ 지난주 현금 7,810원
전교주일 현금 3,125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
3. 교무금 신입요망 30% 이상 인상 신입바람.
4. 주일봉헌금 배가운동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일주일간 더욱 더 많은 여
러가지 은총을 주시라고 정성어린 봉헌을 합니다.
지난주 성미 8되, 누계 322말 6되
□ 지난주일 봉헌금 14,70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영세식 및 유아 영세식 (오늘 오후 2시)
대부모 되실 분 2시까지 성당에 모여 주시기 바람
2. 반회합 11월부터 있음 (반장님들 유의 하시길)
3. 11월은 연령 성월 조상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4. 아동 성가 경연대회 오늘 오후 중앙성당에서
5. 신년도 교무금 신입 바람
6.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있음.
□ 지난주일 봉헌금 10,540원,
전교 현금 5,09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정 승 현
사도 회장 송 재 진

1. 예비자 교리 매주 월요일 저녁미사후 예비자 교리
있음
2.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음
(수제 의연금 및 의류등 지참)
3. 구역 순회미사
서교동 29일 (화) 강팔가리다 (봉자) 반회장택 저녁 6시반
전동 11월 1일 (금) 양요안나 (귀선)택
4. 교무금 신입 75년도 교무금 신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동구별없이 27, 28, 29 3일간 (각 반회장은 적극
협조 요망)

◇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이 수산나 (선경) 풍남동 반회장
김 요안나 (금남) 동원산동

□ 지난주일 봉헌금 41,805원, 감사합니다